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세션 7, 현대 그리스도론, 파트 2, 바르트, 볼트만, 판넨베르크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현대 그리스도론, 2부, 칼 바르트, 루돌프 볼트만,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입니다 .

우리는 칼 바르트의 인물과 함께 현대 그리스도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20세기 서양 신학 전반에 걸쳐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론이라는 주제 전체가 신학의 핵심이었고, 그가 가르침을 받은 이전 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의식적인 반응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처음 5세기의 고전적 정통적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바르트는 당시의 주요 자유주의자들 중 일부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목사로 일했고, 그 신학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로 성경의 이상한 신세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트에 대한 제 설명은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지만,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바르트주의자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박사 학위 과정의 인물 중 한 명인 에밀 브루너는 바르트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역사적 타락을 거부했고, 그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했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실제로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한다고 믿었고, 그런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의 성경 사용은 그의 성경 교리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는 무오성과 같은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는 그의 신학이 보편주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입니다. 그는 그것을 부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차피 가는 곳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서에 동의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처음 5세기의 고전적 정통적 진술을 확언했습니다. 그의 긴 경력 내내 그는 고전적 그리스도론을 충실히 고수했고, 일어난 변화는 그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31년에 안셀름을 연구한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 영어 번역본이기 때문입니다. 바르트는 체계적 신학의 전체 범위에 대한 철저한 그리스도론적 집중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교회 교의학의 첫 번째 권에서 그는 인용하여, 교회 교의학은 물론 전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성경에 의해 증명되고 교회에 의해 선포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인 것처럼, 그리고 이 계시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처럼 확실하다고 썼습니다. 교의학이 자신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론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없다면, 그것은 확실히 어떤 낯선 방식으로 굴복한 것이고 이미 교회 교의학으로서의 특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길과 역사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의 신학의 여러 측면을 계속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저는 선거와 자유의지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그렇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것을 훌륭한 실패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바르트는 예수님 자신이 모든 사람을 위해 택함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보편주의에 대한 경향을 보여주며, 그는 그것을 독특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 점에서 그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에베소서 1장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르트는 그리스도를 그의 사상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때때로 그리스도교주의, 즉 그의 신학의 다른 측면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브루너를 연구했고, 브루너와 바르트는 자연 계시와 자연 신학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불행히도 브루너는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바르트는 그를 알아 보았습니다. 40년대와 50년대 독일에서 신학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바르트는 에밀 브루너에게 화가 나서 쓴 책인 *Nine, No* 를 썼고 사람들은 그 책을 샀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회고하고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 바르트가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창조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한 것은 단순히 실수였습니다.

시편 19편과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이 창조물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브루너가 불행한 언어를 사용했고, 바르트를 불안하게 만든 자연 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연적이거나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모두 죄로 인해 왜곡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교주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바르트는 그리스도를 고전적 정통 신학의 틀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주저 없이 고대 교회의 그리스도론을 받아들인다. 고대 교회의 그리스도론에서 인용한 핵심 진술은 하나님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고, 다시 교회 교의학에서 인용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칼케돈 공의회를 지성주의라고 비난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폄하하기 위해 지성을 강조한다고 비난했을 때

, 그는 공의회가 지성주의라고 비난받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인용문에서,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두 본성에 대해 말하면서, 계시의 신비를 풀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게 비난이었습니다. 풀 수 없는 것을 추측하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신비를 인식하고 존중합니다. 인용문 닫기. 바로 그것이 칼케돈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비를 설명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것을 완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판을 가져왔죠 ?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은 보기에 정말 고무적입니다. 바르트가 말한 다른 곳에서, 칼케돈의 공식은 실제로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트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비인격적 인간 본성과 비인격적 인간 본성과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옹호합니다. 즉, 그는 성육신과 별개로 예수라는 인간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고, 예수가 마리아의 태중에서 인간성을 가진 바로 그 순간부터 비인격적이 아니라 동정녀의 태중에서 로고스와 결합함으로써 비인격적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성을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바르트가 고대 교회의 그리스도론과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로 인해 많은 계층에서 고대 그리스도론에 대한 관심과 수용이 오랫동안 크게 부활했습니다. 바르트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도 다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유주의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에밀 브루너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약의 신화적 변두리에 있는 것으로 여겼고, 저는 칼 바르트를 인용합니다. 에밀 브루너의 동정녀 탄생 부인은 나쁜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의 신학 전체를 부정적인 빛으로 비춘다. 신은 우리 주님의 삶의 시작과 끝에 표지판을 세웠다. 하나는 동정녀 탄생이고 다른 하나는 빈 무덤이다.

우리는 표지판을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브루너는 자신의 부분에서 거인이 된 바르트에 의해 짓밟혔다고 느꼈고, 약간의 악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브루너는 바르트가 Nine, No와 같은 책을 썼기 때문에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트를 독일의 신학적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히틀러를 언급하고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합당한 것일까요? 바르트는 정말 강력한 고객이었습니다.

바르트는 삼위일체의 고전적 교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라면,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계시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실제로 효과적이려면, 하나님 자신이 이 계시를 죄인인 인간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씀의 주체입니다. 그는 계시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는 계시자입니다. 그것은 아들입니다.

그는 계시된 존재이고, 그것은 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다시 바르트를 인용하면, 손상되지 않은 통일이시지만, 그는 또한 계시자, 계시, 계시 됨으로서 손상되지 않은 차이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당신은 바르트가 자신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는 확언하고 있으며, 그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전통적인 교리를 확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신이 그의 가장 깊은 존재에서 삼위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삼위일체는 세상에서 계시되고, 행동하고, 등등하는 삼위일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처럼, 아버지는 택하시고, 아들은 구속하시고,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인장이 되어 그들의 구원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그것이 경제적 삼위일체, 움직이는 삼위일체, 기능적 삼위일체입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또한 존재론적 또는 임박한 삼위일체, 즉 신은 그 자체로 삼위일체 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르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속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교의학의 초기 권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너무 강조되어 바르트는 예수를 신과 동일시하여 그의 인성이 배경으로 밀려났다는 비난을 받았고, 예수와 신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공평하게 말하면, 그것은 아마도 진실된 비판일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훨씬 더 균형을 잡았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항상 아들의 인간적 본성에 대해 강조하여 특정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 대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간의 대조나 긴장이 아니라, 인간 형상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수난을 하나님의 행위로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과 고통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행동과 고통은 하나님 자신의 행동과 따라서 수난으로 표현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진술은 그가 선을 넘고 거의 부권주의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그것을 부인하지만,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진술을 합니다. 후년에 우리는 바르트의 사고방식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에게 일어난 계시의 실제 주체가 신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인류의 진정한 대표자이자, 그에 따라 신의 인간적 파트너로서 행동하는 예수에게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참된 동반자이며, 그를 통해서만 다른 모든 인간이 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르트의 영향력이 가장 높고 절정에 달했을 때, 훨씬 더 급진적인 성격의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서양 신학을 고대 교회의 정통적 입장에서 멀리 떨어진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추세에 주목하고, 무엇보다도 루돌프 볼트만을 주목합니다.

그는 천재였고, 형태 비평, 성경 신학 등 많은 연구 분야의 선구자였으며, 그 주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요한 복음에 대한 엄청난 해설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해석학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있지만, 또한 많은, 많은 기독교 교리를 부정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그리스어 본문으로 요한 1서 2장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기쁨부음, 곧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압니다. 그 의미는 잘못된 그리스도론과 윤리관을 가르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버리고 거부했기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사도들과 성령을 신뢰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당황해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볼트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는 요한 1서 2장의 의미에서 알고 있을까요?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데 재빠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답은, 그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조차도 볼트만이 성육신, 그리스도의 신성, 기적, 천국과 지옥, 재림 때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약학자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루돌프 볼트만의 신화화 해제 프로그램과 성경 메시지에 대한 실존주의적 해석이 신학 논의의 새로운 중심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볼트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예수 자신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바르트의 접근 방식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첫째, 볼트만은 신약을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형태 비판 학파 중 한 사람으로서 그는 신약성서의 기록이 사실적 역사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학의 산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구전 전수와 정기적인 설교 과정에서 온갖 전설적인 요소가 예수의 원래 역사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성서는 이 3층짜리 우주를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신과 천사가 있고, 여기에는 인류와 동물이 있고, 여기에는 악마와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견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전설과 그 놀라운 전설적인 요소들은 현대 남녀에게 맛있고 적용 가능하며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게다가 종교 - 역사 학파의 대표자로서 볼트만은 신약 메시지와 그 시대의 비기독교 종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신약 신학을 읽고 다소 충격을 받았고, 그는 요한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에 대해 많은 좋은 말을 했고, 그런 다음 그가 그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모두 신비 종교와 원시 영지주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황했습니다. 기독교 이전의 영지주의, 그게 바로 그것이었고, 그 이후로 반박되었습니다. 그것은 2세기의 현상입니다.

요한 1서와 같은 초기 트렌드가 있지만, 아니요, 기독교 이전의 영지주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제는 종교가 어떤 의미에서 동등하고 그런 종류의 일에서 서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규범성이나 계시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없습니다.

여기서 그는 신약성서 저자들이 제시한 예수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화적 해석의 배경을 발견했습니다. 바르트와 볼트만의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볼트만이 예수와 그의 사역에 대한 신약성서의 모든 내용을 인류학적 범주로 번역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글에서 또 다른 방식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따른 자기 이해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좌파의 급진적 좌파 철학자들과 무신론적 철학자들은 루돌프, 당신은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흡수했고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가지 더 신화를 탈피한다면, 당신은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을 완전히 신화화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 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젊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이 볼트만에게 미친 깊은 영향을 접하게 됩니다. 볼트만에게 우리의 신학적 지식은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실, 그의 학생 중 한 명은 신을 믿는 자기 이해로 정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실존적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는 신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학적, 그리스도론적 담론은 그 자체로 인류학적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신학에 해당하는데, 볼트만이 그의 신약 신학에서 인용한 바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주장은 또한 인간에 대한 주장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바울의 그리스도론은 동시에 구원론이다.

볼트만은 1941년 유명한 강의인 신약과 신화에서 자신의 접근 방식 전체를 요약했는데, 여기서 그는 신화화 해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신약이 신화로 가득 차 있다는 확신입니다. 모든 작가는 고대 세계 그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이미 말했듯이 3층 구조로 보입니다. 네, 네, 신은 이 세상의 일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화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현대인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약성서에 제시된 예수의 메시지를 문자적 성육신, 문자적 기적, 문자적 속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제한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적 속죄, 문자적 부활, 문자적 승천을 말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메시지의 신화적 틀에 속합니다.

메시지 자체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신약을 철저히하고 근본적으로 신화화 해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옛 자유주의자들의 실수에 다시 빠지고 있지 않은가요? 그들도 똑같이 하지 않았나요? 볼트만은 여기서 문제를 깨닫지만, 그의 신화화 해제 프로그램과 옛 자유주의자들의 프로그램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은 성경의 전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작가들이 이 모든 신화를 통해 어떤 종교적 경험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는 신인(God-man)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인격을 비신화화해야 합니다. 신약성서가 예수에 대한 신화적 해석을 내놓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를 지구에 내려와 기적적으로 태어난 선제한 초자연적 존재로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3일 후, 그는 다시 살아나 기적적으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미래에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순수한 신화입니다. 예수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려면 다시 인류학적 실존적 범주로 번역해야 합니다. 신약성서 필자들이 실제로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의 역사적 인물과 그의 삶의 사건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그를 계속해서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용문 끝. 그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인용문, 예수의 모습은 그의 내면적 세계적 맥락에서 단순히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화적 언어로, 이는 그가 영원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기원은 인간적이고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인용문 닫기. 일상 언어로, 이것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 그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래로부터 그리스도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현존합니다. 신학적인 언어로는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믿음의 자기 이해로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성경 메시지의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교황 몬테의 신학에는 많은 성경적 모티브가 존재하지만, 그의 그리스도론이 신조의 그리스도론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헤르만 사사는 한때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는 당연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혔지만 지옥에 내려가지 않았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지 않았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그에게서 구원의 종말론적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죽음 이후 어느 때인가 발견한 사실이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사람이 20세기 신약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저에게 슬픈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자는 너무 멀리 흔들렸고, 다시 흔들렸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JAT 로빈슨은 다소 유명합니다. 저는 그를 순서 없이 알고 있고, 한스 쿡과 칼 라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신에 대한 정직함은 그가 실제로 공통 언어로 신화화 해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영국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대인은 단 하나의 현실, 즉 이 우주만 알고 있습니다. 신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가 저 밖에 있다는 관점이 아니라 깊이에 대한 관점입니다. 신은 우리 존재의 근거입니다.

그는 사실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폴 틸리히의 급진적인 그리스도론, 신학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나아가 신은 죽었다는 신학을 주장했는데, 이는 신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오류이며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론적 집종의 맥락은 현대인의 무신론입니다. 아우슈비츠 이후 현대인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전통적인 서양 유신론은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신은 죽었습니다. 로빈슨으로 돌아가겠지만, 그의 신에 대한 정직함은 영국인들을 흔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으며, 심지어 일요일 학교와 신의 말씀을 전파한 성공회 성직자들로부터 배운 예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느낀 우울한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두 중요한 인물은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와 위르겐 몰트만 이었습니다 .

판넨베르크 는 그의 주요 저서인 예수, 신, 그리고 인간에서 방법론적으로 우리는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보다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선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아래로부터의 절대적 그리스도론과 상대적 그리스도론의 구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아래에서 시작하지만 역사적으로 빈 무덤까지 나아가고, 예수의 고백을 믿고, 결국에는 성육신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확인합니다. 그는 왜 아래에서 시작했을까요? 그런 접근 방식은 예수의 신성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역사적 인물인 나사렛 예수의 독특한 특징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온 방식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입장을 채택합니다. 위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판넨베르크가 성육신의 개념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그리스도론의 성육신을 완전한 오류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성육신의 개념을 받아들이지만, 이 개념을 그리스도론의 목표가 아닌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것은 전통적 그리스도론의 오류로 봅니다.

저는 요한과 바울이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았고 우리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판넨베르크의 결론 중 많은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판넨베르크는 또한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지만,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래, 즉 역사적 예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볼트만과 대조적으로 이 활동과 인간 예수의 운명을 알 수 있을까요? 그의 극단적인 회의주의에 반응한 볼트만 이후의 사람들과 동의하면서 판넨베르크는 우리가 사도적 설교, 케리그마,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들의 메시지 뒤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의 직접적인 맥락이 유대인의 종말론적 기대의 맥락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수는 죽은 자의 일반적인 부활, 하늘에 있는 인자의 출현,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시작과 함께 역사의 절대적인 종말을 기대했다. 그의 틀 안에서 예수는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그의 직분을 다했다.

이 모든 것에서 예수가 엄청난 권위를 주장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이 주장은 선동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한 미래의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접근 방식의 천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입증을 기대했던 것은 하나의 큰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들에 의해 정죄를 받고 로마인에 의해 반역자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그리하여 그와 그의 주장을 입증하셨습니다. 사실, 역사의 마지막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의 부활은 이 종말에 대한 선견지명적인 기대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또한 예수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부활에서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인용하자면, 이 사람으로서, 이 특별한 역사적 사명과 이 특별한 운명을 가진 이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으로서, 예수는 그저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한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것은 판넨베르크의 인용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을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종속된 존재로 여겼던 역사적 예수에 대해 읽은 것과 상충되지 않는가? 판넨베르크의 대답은 이 종속이 회고해보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예수의 본질적 일체성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한 예수는 신의 신성을 계시하는 자이며 신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부활절 전의 삶에서 이미 신의 아들이었지만 아직 그렇게 인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 탄생의 전설은 그가 처음부터 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의 선재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항상 하나였고, 심지어 그가 지상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에 대해 오직 성육신의 관점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개념은 그리스도론에서 출발점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확언합니다. 이 모든 것은 판넨베르크의 인용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타자성에서 벗어나 우리 세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회고해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하나님의 본질에 속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는 육체적 형상을 획득했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이 항상 거룩한 삼위일체로 존재했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들의 성육신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성서 자체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오, 당신은 기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에서 뒤돌아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하나 안에 두 분이심을 이해합니다. 오순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안에 세 분이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영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올바르게 읽습니다. 사실, 그것은 특정 신약성서 진술에 근거합니다.

판넨베르크는 인용문에서 예수께서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유지한 구별이 또한 신의 삼위일체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판넨베르크의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완전한 삼위일체 교리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예수의 인간성, 즉 참된 인간성이 참된 신성에 삼켜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판넨베르크는 비잔티움의 레온티우스의 6세기 교리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비인격적 인간성과 비인격적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정통파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예수를 두 본성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서둘러 설명합니다. 그는 그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 가지 보완적인 측면에 대해 말한다. 클라우스 루니아는 평가하고, 사실, 내가 읽지 않을 판넨베르크의 이 말은 너무 자세해서, 그리스도의 비인격적 인간성에 대한 고대 교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즉, 단순한 인간은 없었다.

예수, 하느님께서 오셔서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인격적 인간성, 즉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의 인간성이 시작된 순간부터, 그의 인간성은 그녀의 태중에서 아들, 즉 말씀과 결합함으로써 비인격적이었습니다. 클라우스 루니아의 평가.

판넨베르크의 그리스도론은 아래에서 시작해서 역사적 예수에서 부활의 전환점을 거쳐 궁극적으로 고전적 그리스도론에 매우 가깝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두 본성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지 않고 예수 존재의 두 가지 보완적인 전체적 측면의 간접적 동일성에 대해 말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의 관점이 칼케돈 전통의 변형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판넨베르크의 그리스도론에서 중요한 측면은 아래에서 그리스도론을 발전시키기로 한 그의 결정이다.

우리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확실히 장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그것은 예수의 역사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둘째, 그것은 그의 부활을 예수의 삶과 사역에서 큰 전환점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판넨베르크가 예수에 대한 성경적 자료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종종 상충되는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 역사-비평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식과 잘 맞지 않는 동정녀 탄생은 전설로 분류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 예수에게 기인하는 메시아이자 신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자의식은 부인됩니다.

클라스 루니아는 현대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의 전략의 일부로서 최소한 판넨베르크의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버전에 대한 감사를 포함합니다. 그는 판넨베르크가 성경적 증거의 일부를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만, 거기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과 요한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나는 그것에 진심으로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판넨베르크가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을 고집한 것도 그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종말론적 엔히포스타시스에 도달한 이유일 것이다. 예수 안에서, 신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이 통합된다.

판넨베르크는 이것이 예수의 역사적 삶의 특수성에서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그는 곧 이 통합이 미래에 모든 인간 현실로 확장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런 식으로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사실상 보편주의에서 인간을 신격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지 궁금하다. 물론, 나는 이 지점에서 판넨베르크와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상 그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혼합된 평가지만, 바르트가 옛 자유주의자들보다 나았고 볼트만은 엄청난 탈락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훨씬 더 수용 가능하지만 완전히 정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트만과 비교했을 때 판넨베르크 는 훨씬 더 뛰어나고 사실 볼트만보다 더 뛰어납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다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현대

그리스도론, 2부, 칼 바르트, 루돌프 볼트만,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
입니다 .